

PUBLIC ART | 퍼블릭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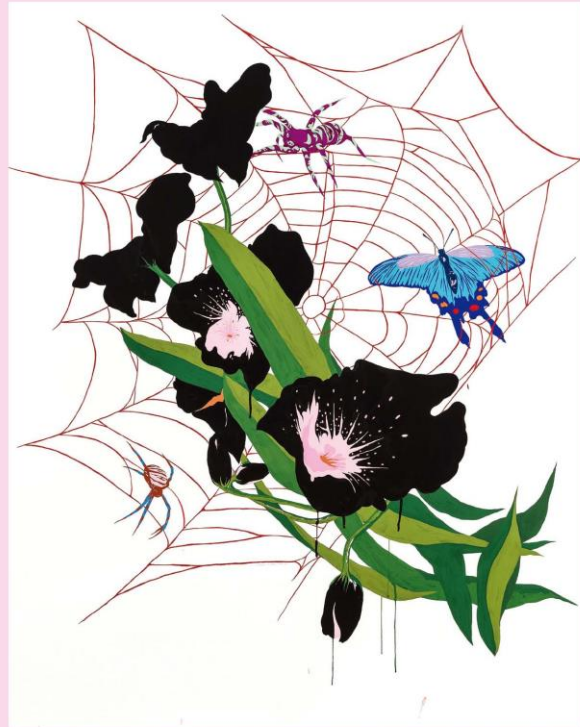
# 프리뷰

지희킴\_썸데이즈  
10.19-11.13 디스위켄드룸

# 이슈



<중오심으로 불타는> 2022 아르쉬 종이에 구아슈 140×113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ThisWeekendRoom, Seoul



<복수를 꿈꾸는> 2022 아르쉬 종이에 구아슈 150×131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ThisWeekendRoom, Seoul

지희킴은 몸이라는 겉데기 가장 밑바닥에 있는 비언어적 반응에 주목한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불안전하고 번덕스러우며 까다롭지만, 그것이 느끼는 가시화되지 않은 감응의 양태는 우리의 삶을 긍정하고 욕망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지희킴은 인간이 현실에 맞서 획득하는 에너지의 흐름을 기만하게 살피며 그것을 어떤 실체로 고집어낸다.

작품을 통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 않으며 변할 수밖에 없음을 실파하던 그는 자신이 집중하는 주제를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드러낸다. 그간 구축과 해체의 양상을 동시에 띠며 스스로의 감각을 지지대 삼아온 작가는 신작 <중오심으로 불타는>이나 <복수를 꿈꾸는>을 통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혁신을 선택한다. 너무 아름다워 위험하게 느껴지는 꽃이나 한치 앞을 모르고 달려드는 나비는 그간 지희킴이 그려온 서로 영킨 모호한 것들과 사뭇 다르다.

그는 정원에 존재하는 요소의 성질을 각 개인의 내면을 대변하는 함축적 매개물로 상징한다. 고독하고, 때로 비참하고, 두근대거나 환희에 차 설레는 감정의 편린을 과감한 형과 색으로 완성한 것이다. 타인에게 넘겨받은 책에 드로잉을 얹으며 서재와 긴밀하게 연결됐던 작가는 정원과 서재가 많이 닮았음을 깨달았다. 두 공간은 인공적으로 구축된 곳이며 동시에 사람들이 늘 가꾸고 관리하며 삶의 한 부분으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이것이 전시 <썸데이즈(Sundays)>를 위한 개념적, 상징적 배경이 되었다. 서사는 변주됐지만 인간을 둘러싼 사회의 관습적 개념의 범위를 해체하고

그 사이에서 새로운 담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가의 기본 맥락은 고스란히 유지된다. 인간이 가진 원초적 감각의 팔레트가 꽃과 곤충으로 서로 겹치며 완성되는 장면을 지금 만나보자.



<Queen> 2022 런던에서 기증받은 책 페이지에 구아슈 28×43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ThisWeekendRoom, Seoul